

2020년 5월 15일(금)

###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

-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 
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 
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 
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
- 2 내 힘만 의지 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  
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 
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 
만군의 주로다 당할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
- 3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하나  
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 
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 
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

###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

-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 
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
- 2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  
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
-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 
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
- 4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 
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
-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 
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

5월 16일(토) 기도 담당 : 이현무 집사

## 이른아침예배

인도 : 장지훈 목사

예배를여는말 ..... 인 도 자

신 앙 고 백 ..... 사도신경 ..... 다 함 께

찬 송 ..... 585장 ..... 다 함 께

기 도 ..... 김한기 집사

성 경 봉 독 ..... 빌립보서 3:12~16 ..... 인 도 자

설 교 ..... 『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』 ..... 이상학 목사

기 도 .....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..... 다 함 께

찬 송 ..... 412장 ..... 다 함 께

축 도 ..... 설 교 자

### <기쁨의 50일- 빌립보서 강해 본문 및 설교 제목>

요 일	본 문	제 목
5월 12일(화)	빌 3:1-6	육체를 신뢰하지 말라
5월 13일(수)	빌 3:7-11	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...
5월 15일(금)	빌 3:12-16	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

##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

2020년 5월 15일(금)

###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!

오늘도 우리에게, 누구보다 이 자리 잘 감당할 것이라 믿어주셔서, 이 한 날 허락 해주셨음을 믿습니다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, 오늘도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.

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기쁨의 경주가 되게 하시고,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세상이 주는 안일한 생각에 결코 혼탁해지지 않으며,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만을 향해 달려가는,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.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, 우리에게는 동일한 방향과 목표가 있음을 믿습니다. 우리의 영원하신 쫓대,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.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,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, 참된 제자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.

###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!

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.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, 성령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. 당회와 모든 교역자,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은혜의 빛을 비취주시고, 주님의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행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. 모든 새문안 성도들이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시고, 날마다 기쁨의 경주로 지칠 줄 모르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. 가정과 학교, 일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고,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.

###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!

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. 그 하늘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,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함께 하시며, 특별히 오늘, 이 땅의 모든 교사와 스승을 기억해주시고,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,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후학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또한 그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마땅한 감사를 기억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.

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